

九死
十一
生

2024

GGB 지음

<구사십일생 2024>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2. 수능 <영어 영역>의 답 개수 분석이 타 과목에 비해 맞을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

3. 홀수형과 짝수형의 차이?

4. [18~20] tip

5. [25~28] 도표 tip

6. [35] 무관한문장, [43~45] 장문

7. [30] [42]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

8. [31~34] 빈칸추론

9. [36~39] 순서/삽입

10. [21] [29] [40] [41] 나머지 여러 문제들

+ 마지막으로

I.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영어공부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을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고 유명 강사의 인강 혹은 현강을 들으며 영어 점수를 한 등급 이상 혹은 단 몇점이라도 올리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적게는 수십시간부터 많게는 수천시간까지, 적게는 교재비 몇 만원부터 많게는 학원비 몇백만원까지, 이러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했지만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수능에서 당신이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당신이 1주일 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1점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영어시험에서 어떻게 해서든 한 문제를 더 맞게 중요하데, 몰라서 틀릴 문제라도 어떻게라도 맞힐 확률을 높이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게 찍기 일지라도. 그렇다면 이 찍기에는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바로 '통계'입니다. 제가 **구사십일생**에서 제시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평가원에서 낸 수많은 모평과 수능의 정답의 개수와 패턴을 분석하여 찍어도 최대한 높은 확률인 선지로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령, 최근 6회의 시험에서 어떤 문제의 정답이 343333 이었다면 당신은 그 문제를 3번으로 찍는게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몰라서 틀릴 문제, 이걸 보고 찍어도 밀쳐야 본전입니다.

2. 수능 <영어 영역>의 답 개수 분석이 타 과목에 비해 맞을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이것은 단순한 찍기방법을 알려주는게 아니다.

수능영어 시험은 문제 유형과 문제 배치인 시험지 틀이 정해진 시험이다.

문제 유형에 따라 평가원에선 정답으로 내기 어려운 번호가 존재하고 반대로 자주 나오는 번호도 존재한다.

-예를들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나 문장삽입에서 ①번이 절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또는 18~20번의 답이 ①,②,③에 86%이상 집중된 것처럼.

또한 이전 선택지의 정답번호에 따라 다음 문제의 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유형도 존재한다. 예를들면, 순서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가 B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 문제가 C로 시작할 확률이 높은 것과 같이.

필자는 현재 영어시험의 틀이 고정된 **19학년도 수능부터** 선지 분포를 분석하여

답이 되었던, 그리고 될 확률이 높은 선택지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동강령 및 태도를 알려주고, 통계에 기반한 선지 판별 우선순위를 정해 시간을 단축시키며, 찍더라고 역대 평가원의 정답이 뒷받침해주는 찍기를 통해 영어 점수의 단기간의 비약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19학년도 수능부터를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다.

+과거 구사십일생 후기 일부

2022-11-17 17:24:09 조회수 2,961 1

영어 구사십일생 진짜 미친 거 아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469892>

2022-11-17 23:25:58 조회수 1,222 0

영포자가,, ggb께 감사합니다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497269>

씨발 전날까지 56점 나왔는데 구사십일생 보고 82점 나온 터미널에서소리 지름 6모 불영어 69 4등급 9모 불영어 87 2등급 수능 불영어 짝수형 82 2등급

한방에간다리

빈말이 아니라 이거보다 완벽한 파이널은 없음

2022.10.26
20:01:54

MUNGWA

6평 76 9평 81 시험 당일 새벽 5시에 평학모 68나오고 멘탈 나가서 이거 봤는데 7문제 안 풀고도 수능 90받았습니다

2021.11.30
17:18:42

작수 영어 ggb 짝특으로 4에서 2등

개 레전드였는데 한 28개 풀고 17개 찍었는데 ㅋㅋㅋ

경제 · 1160444 · 11/09 08:07 · MS 2022
이거 하나가 사실 웬만한 인강보다 나은듯..
좋아요 31 · 답글 달기 · 신고

sdij03 · 988159 · 21/11/19 15:06 · MS 2020

9모 5등급 전 날에 급하게 사서 밤에 보고 잤는데 기억 안 나서 영어 예비형 전까지 예열지문 안 보고 찍기 팁 숫자만 ㄹㅇ 외우다가 마지막에 빈칸순삼 8개 다 찍었는데 31 34 37 39 47개 맞았어요ㅋㅋㅋㅋ 덕분에 영어 86 떠서 최저 맞았습니다 제 순결을 가져주세요 GGB

뽕또아 · 882268 · 21/11/18 19:40 · MS 2019

심리적 안정감 지렸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2 · 답글 달기 · 신고

승희니디 · 1083132 · 21/11/19 11:08 · MS 2021

3모 4등급
4모 3등급
6모 3등급
7모 3등급
9모 3등급
10모 3등급
구사십일생 결제
수능 97점 32번틀림

Aic · 955687 · 21/11/18 20:07 · MS 2020

올해 영어 100시간도 안한거 같은데 92 나온 가성비 러ㅇ 스테ㅸ
좋아요 5 · 답글 달기 · 신고

붕어싸10000코 · 1027132 · 21/11/18 22:56 · MS 2020

9모 80-> 수능 90 사랑합니다 진짜 고1이후로 1등급 처음인듯
좋아요 3 · 답글 달기 · 신고

연세대학 21학번 · 915938 · 21/11/18 23:44 · MS 2019

도움 많이 났습니다 7개찍어서 4개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2 · 답글 달기 · 신고



수능2주남기고가입한재수생 · 1091513 · 21/11/19 02:50 · MS 2021

와 님 레전드..... 저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놓고 한번 보고 말았는데 시험 때 멘탈 갈려서 손 떨리는 와중에 님이 찍기특강에 썼던 논리?가 생각나서 그거 토대로 열심히 찍었더니 92 나온. 울면서 풀었는데 님 아니었으면 3등급 나왔을듯요 감사합니다....

Shean.T(선티) · 253967 · 22/11/03 16:26 · MS 2008

현장에서 자꾸 찍기특강 안 해주시냐고 하는데..
약간의 리스크를 걸더라도 진짜 꼭 필요하면
이거 보라고 하겠습니다 ㅎㅎ
좋아요 122 · 답글 달기 · 신고

[수능자유게시판 >](#)

오르비 구사십일생 저자분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계레르니 · 1100202 · 10/22 23:55 · MS 2021

작년에 이거 아니었으면 순살나거리되서 3뜨는거였는데 ㅋㅋㅋㅋ

그날들 · 996441 · 10/22 20:03 · MS 2020

이걸로 1등

3. 홀수형과 짝수형의 차이

영어(홀수)

1	③	2	②	3	③	4	④	5	②
6	③	7	⑤	8	③	9	②	10	①
11	②	12	①	13	④	14	④	15	③
16	①	17	⑤	18	①	19	③	20	③
21	①	22	①	23	②	24	⑤	25	④
26	⑤	27	②	28	④	29	②	30	⑤
31	②	32	②	33	①	34	⑤	35	③
36	②	37	④	38	⑤	39	④	40	①
41	①	42	④	43	⑤	44	⑤	45	④

영어(짝수)

1	③	2	②	3	③	4	④	5	②
6	③	7	①	8	③	9	②	10	①
11	②	12	⑤	13	②	14	②	15	①
16	③	17	⑤	18	③	19	③	20	①
21	①	22	⑤	23	④	24	①	25	④
26	⑤	27	②	28	④	29	②	30	⑤
31	①	32	④	33	①	34	⑤	35	③
36	②	37	④	38	⑤	39	④	40	②
41	①	42	④	43	⑤	44	⑤	45	④

듣기, 18~24번 문제, 빈칸추론, 40번 문제에서의 선지 배치가 주로 바뀐다.

23수능의 답 개수를 ①,②,③,④,⑤ 번 순으로 세어보면 다음과 같다.

홀수형 : 9 10 8 9 9

짝수형 : 9 10 8 9 9

위와 같이 듣기를 포함한 답 개수는 홀수형과 짝수형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듣기를 제외한 문제의 답 개수를 세어보면

홀수형 : 6 6 3 6 7

짝수형 : 6 4 3 8 7

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것으로 인해 홀수형과 짝수형에 따른 찍기 방식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18~24번 문제, 빈칸추론, 40번 문제에서만 답이 서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은 변함이 없다. 또한 통계를 내어보면 홀수형과 짝수형에 대해서 찍기에 대한 차이도 거의 없다.

6. [35] 무관한문장, [43~45] 장문

	35	43	44	45
19홀	4	2	5	2
19짜	4	2	5	2
2006	4	5	5	4
2009	4	5	2	2
20홀	3	3	2	3
20짜	3	3	2	3
2106	4	5	2	2
2109	3	2	4	5
21홀	3	3	5	4
21짜	3	3	5	4
2206	4	3	2	5
2209	3	4	1	4
22홀	4	3	3	2
22짜	4	3	3	2
2306	3	3	5	3
2309	4	5	2	3
23홀	3	5	5	4
23짜	3	5	5	4
2406	3	2	5	2
2409	3	4	3	3

유형	번호	①	②	③	④	⑤
공통	35	0	0	8	7	0
		0%	0%	53%	47%	0%

유형	번호	①	②	③	④	⑤
공통	43	0	3	5	2	5
	44	1	5	2	1	6
	45	0	5	4	4	2
	43	0%	53%	47%		
	44	7%	33%	13%	7%	40%
	45	0%	33%	27%	27%	13%
	43~45	2%	98%			

무관한 문장을 찾는 문제는 절대적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시험장에서는 까다롭게 느껴질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 유형의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봤다면 ①, ⑤번은 정답이 거의 없다는 것을 눈치를 챘을 것이다. 실제로 통계를 내어보면 ①, ⑤번에는 정답이 단 한 번도 나온적이 없었다. 하지만 ②번도 정답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현재까지 답은 ③번 또는 ④번뿐 이었다.

[43-45]의 문제에서 주목할 점은 43번 문제이다. 43번 문제는 글의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번호	①	②+③	④+⑤
시작	(B)	(C)	(D)
43	0%	53%	47%

- ① (B) - (D) - (C)
- ② (C) - (B) - (D)
- ③ (C) - (D) - (B)
- ④ (D) - (B) - (C)
- ⑤ (D) - (C) - (B)

위의 통계를 보면 알다시피 ①번이 답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첫 문단 (A) 다음에 올 (B), (C), (D) 중에서 (B)가 첫 번째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A)를 읽고 (B)는 넘기고 (C) or (D)를 먼저 읽도록 하자.

+) [43~45]을 다 합쳐도 ①번이 답이 된 적은 단 2%에 불과하다.